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작품번호	201
작품명	지구가 아파요!!
작품설명	벚꽃이 한창인 어느 날, 꽃구경하기 바쁜 사람들과 달리 점점 살 곳을 잃어가는 동물들은 아픈 지구를 병문안하러 왔어요.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02</p>
<p>작품명</p>	<p>지구를 지키자!</p>
<p>작품설명</p>	<p>요즘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 같아서 오염되고 있는 지구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쓰레기를 막 버려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지구, 또 오른쪽은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셔서 웃고 있는 지구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은 지구가 오염되어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깨끗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작품입니다.</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03</p>
<p>작품명</p>	<p>친환경 자동차 TED(테드)(테드를 탄 행복한 북극곰)</p>
<p>작품설명</p>	<p>방사능, 환경오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 더러워진 공기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 TED. 테드가 나쁜 공기를 꿀꺽꿀꺽 먹고 달리면 맑고 깨끗한 공기가 뿜뿜 만들어져요! 테드가 지나간 자리엔 사과나무가 쑥쑥 자라고 예쁜 새가 지지베베 노래하고 개나리와 예쁜 꽃이 피어나고 지렁이가 행복해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맑은 공기를 위해 나도 테드처럼 환경지킴이가 될래요!(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물 아껴쓰기, 나무심기 등등)</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04</p>
	
<p>작품명</p>	<p>지구를 지키자</p>
<p>작품설명</p>	<p>쓰레기 트럭 뒤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그리면서 지구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그려 봄. 지구 밑에 오염된 물을 그리며 여러 갈매기, 거북이 등의 생명체들이 당할 수 있는 폐해를 나타내며 마음 아픔을 표현함. 에너지 소비율 등급 5 자동차가 내뿜는 강한 매연으로 인해 지구 환경이 오염되는 현실을 그리면서 지구가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지구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렸음.</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작품번호	206
	
작품명	나는야 환경지킴이!!
작품설명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행동 중 하나이지만 반면에 가장 쉽게 대충 처리하는 행동이기도 한데 동물도, 자연도, 자연환경도 모두가 깨끗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하며 환경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해보자는 내용입니다.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07</p>
	
<p>작품명</p>	<p>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p>
<p>작품설명</p>	<p>연못(강)에 사는 오리와 물고기들이 힘들어지는 요즘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강과 물이 오염되고 있는데 결국은 물속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까지도 위험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부터라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도록 치우고 노력해야 해요.</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작품번호	208
	
작품명	깨끗한 지구, 우리가 지켜요!!
작품설명	조금씩 더럽혀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09</p>
<p>작품명</p>	<p>햇살이 비치는 바닷속</p>
<p>작품설명</p>	<p>살기 좋고 깨끗한 바다 환경 속에서 거북이도 오징어와 물고기도 행복하게 웃으며 햇살이 바닷속으로 스며드는 그 순간을 느끼며 해염을 치고 있고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도 바닷속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장면을 그려보았어요.</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작품번호 210



작품명 모두가 힘을 모아 깨끗하게 닦아내요.

작품설명

오염되고 더럽혀진 바다를 사람들이 힘을 모아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원래의 깨끗했던 지구와 바다를 되돌리고자 하는 내용의 그림이에요. 깨끗해진 바닷속 물고기들이 웃는 날이 평생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11</p>
	
<p>작품명</p>	<p>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p>
<p>작품설명</p>	<p>사람들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들로 인해 문어와 물고기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과거의 깨끗한 물에서 살았던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물고기들과 지구가 아파하지 않아요.</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12</p>
<p>작품명</p>	<p>오염된 환경, 깨끗한 지구</p>
<p>작품설명</p>	<p>오염되고 더럽혀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동,식물)들이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으로 살기 좋은 깨끗한 지구를 가꾸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해볼까요!!</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13</p>
	
<p>작품명</p>	<p>살려 주세요~!!</p>
<p>작품설명</p>	<p>사람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들로 동물들이 아파하는 모습이에요. 분유통에 머리가 끼어 힘들어하는 토끼와 옆에서 슬퍼하는 고양이까지 우리가 한 행동으로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숨을 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정말 끔찍할 거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자연환경과 지구를 지켜서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함께 노력해보요.</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작품번호	214
 A colorful child's drawing on a yellow background. In the center is a smiling Earth with a face, breathing out a stream of air labeled 'CO2'. To the left, a boy in a blue shirt with a white 'A' and blue pants stands with his hands on his hips, looking towards the Earth. To the right is a large sunflower with a green face and red petals. Various insects are depicted: a blue dragonfly-like insect at the top, a blue fly near the Earth's face, a blue dragonfly on a green leaf below, and several black ants on the ground at the bottom. The scene is bright and cheerful.	
작품명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요
작품설명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구에서 산소도 깨끗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새도, 곤충들도 살기 좋아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늘 이런 환경에서 살길 바라요~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15</p>
	
<p>작품명</p>	<p>기상 이변 현상이 무서워요.</p>
<p>작품설명</p>	<p>기상 이변 현상으로 어느 나라는 기온이 40℃ 이상으로 더워지고 어느 나라는 기온이 -50℃ 이하로 내려가서 동물들이 제자리에서 동사해버리고 자동차에 갇히고 집에서 꼼짝도 못 하고 사는 세상이 된 걸 무서워하는 어린이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어요. 더 이상 기상 이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지키는데 힘을 써야하지 않을까요?</p>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16</p>
<p>작품명</p>	<p>지구가 아파요!!</p>
<p>작품설명</p>	<p>오염된 지구로 인해 지구가 열이 나고 다치고 아파해서 태양이 구해주고 다른 행성들이 도와주러 오고 있어요. 링겔도 맞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은 바로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거예요. 제발 도와주실거죠~</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17</p>
<p>작품명</p>	<p>지구 환경을 지켜주세요!</p>
<p>작품설명</p>	<p>공장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와 자동차 매연 사람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고 북극이 녹고 있어요. 북극곰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구환경을 지켜주세요.</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22</p>
<p>The drawing depicts Earth as a character with a sad face, a thermometer on its forehead, and a cracked, dry landscape. Below the Earth, three scenes are shown: a person riding a bicycle, a girl holding a patch labeled '지구용 해열패치' (Patch for Earth) with the text '다 먹었어요!' (I've eaten it all!), and a farmer's market with a sign '로컬마켓' (Local Market) and people shopping.</p>	
<p>작품명</p>	<p>지구용 해열패치</p>
<p>작품설명</p>	<p>제가 열이 펄펄 날 때 엄마는 제 이마에 해열패치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열이 펄펄나는 지구에게 해열패치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우리의 노력이 지구에게는 해열패치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로컬마켓 상품을 구매하고 내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나무를 한그루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지구의 해열패치가 되어 지구의 온도를 내려주면 좋겠습니다.</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작품번호

223



작품명

내가 어두워지면 북극곰 가족의 집이 더 빛나요.

작품설명

우리가 에너지를 자꾸 사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편의 북극곰의 집이 없어지고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세계 불 끄는 날에 잠시라도 불을 끄면 우리가 잠시 어두워지는 만큼 북극곰이 조금 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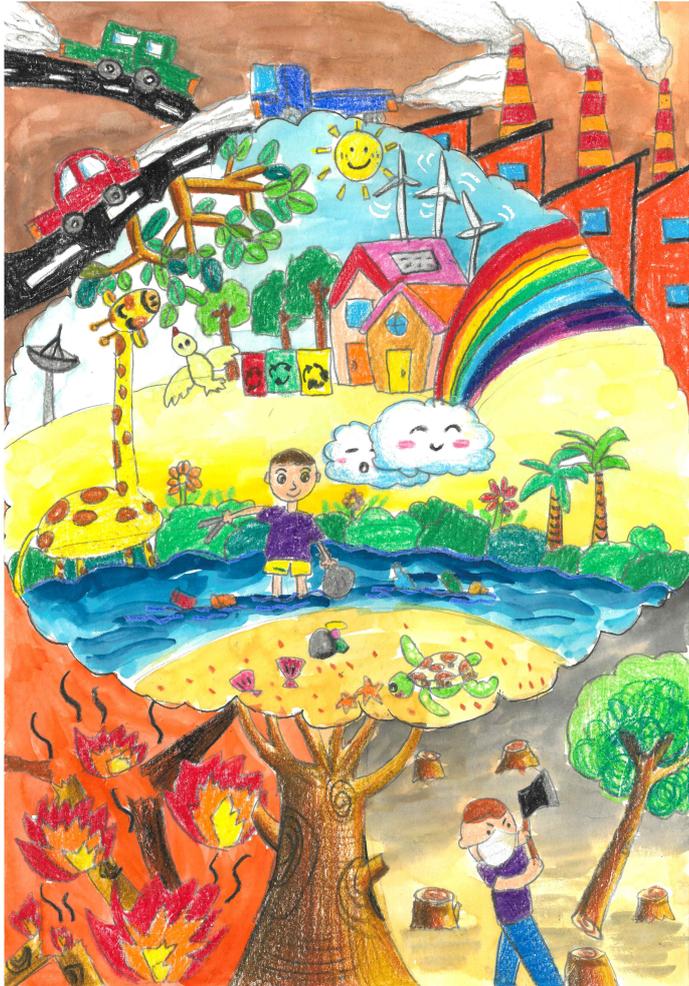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27</p>
	
<p>작품명</p>	<p>지구가 병원에 왔어요.</p>
<p>작품설명</p>	<p>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아파진 지구는 여름에 눈이 내리고 봄에는 새싹이 자라지 않고 곳곳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졌어요. ○○○(응모자) 의사 선생님은 이런 지구를 치료하기 위해 아픈 지구의 이야기를 듣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야 아프지 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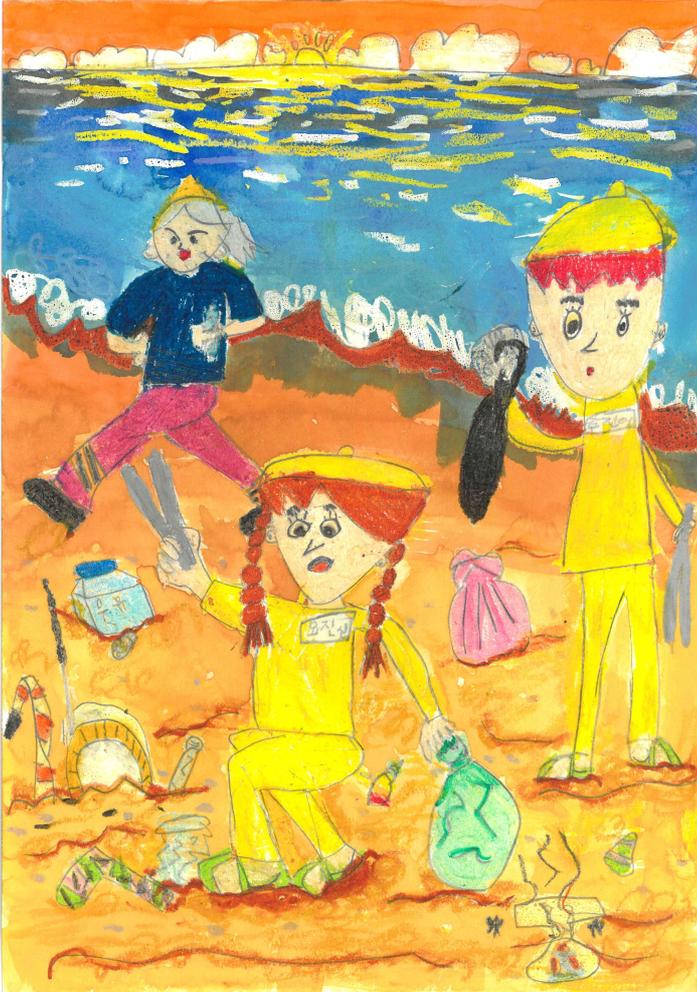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30</p>
	
<p>작품명</p>	<p>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p>
<p>작품설명</p>	<p>제가 살고있는 지구에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봄인데도 여름처럼 더운 날씨와 겨울에는 따스한 기온 때문에 눈이 오지 않고, 너무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를 지키고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와 가까운 거리 걷기,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하기, 쓰레기 줍기, 나무 가꾸기 등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무의 소중함을 담아서 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p>

## 강원지방기상청 「2024 세계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 후보작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

<p>작품번호</p>	<p>232</p>
	
<p>작품명</p>	<p>강릉 바다를 지키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p>
<p>작품설명</p>	<p>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기후 위기가 왔다. 탄소를 빨아들이는 바다를 지키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을 모두 함께해야 한다. 매년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년 달라지는 이상기후를 관찰하고 내가 살고 있는 강릉 바다에 관심을 두고 늘 돌봐줘야 하는 마음을 그림에 담았다.</p>